

[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예선 심사총평]

올해 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는 전국에서
 총 28개 팀이 지원했습니다. 작품들의 경향도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작극 등 고령 작품들이 보였으며
 시민연극 단체 단위로 작품개발을 지역소재로 충실한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예선 심의에서는
 시민단체로 갖추어진 연극적 역량, 희곡의 다양성,
 작품의 연출력과 공연 계획은 광범으로 심의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지역안배 보다는 시민단체로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보이느냐와, 영산은 동계서 전라권 단체의
 표현기법 등은 광범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부분은 시민단체중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극단들
 시민극단의 범주가 포함해야 하므로 심층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거쳐 총 8개 단체, 17개작
 추천함을 선반했습니다

2025년 03월 17일

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예선 심사위원단

김건표, 최성봉, 박우열, 박성희

김건표 (인)

최성봉 (인)

박우열 (인)

박성희 (인)

[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예선 심사총평]

올해 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는 전국에서 총 28개 팀이 지원했습니다. 작품들의 경향도 번역극에서부터 창작극 등 고른 경향들이 보였으며 시민연극단체팀임에도 작품개발을 지역소재로 창작한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예선 심의에서는 시민단체로 갖추어진 연극적 역량, 희곡의 방향성, 작품의 연출의도와 공연계획을 중심으로 심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안배보다는 시민 단체로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보이는지와, 영상을 통해서 전달된 단체의 표현구성들을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한 것은 시민단체 중 프로극단화 되어있는 극단을 시민극단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지 심층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8개 단체, 1개 단체 후보팀을 선발했습니다.

2025년 03월 17일

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예선 심사위원단

김건표, 최성봉, 박우열, 박성희